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무등산 능선.



증심사 계곡은 크고 작은 식물이 들어서면서 점차 오염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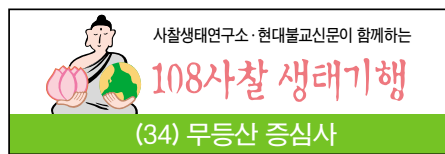


물까지의 산의 높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곳에서 살고 있다.



암골곶면표범나비(왼쪽)와 춘설차밭. 차밭은 등산객으로 번잡한 증심사 골짜기와는 또다른 세상이다.

높낮이 없는 깨침의 법문 가득



공유화운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다. 지금도 시민들이 무등산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속속 내놓고 있다. 증심사도 이 운동에 동참해 사찰림 일부를 내놓기로 했다.

증심사로 가는 길의 좌우에는 크고 작은 식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그래서 주위의 환경 파괴와 수질오염이 영 말미 아니다. 주차장 쪽보다 훨씬 위쪽인데도 개울은 4급수에 산다는 실지렁이마저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 '물 맑을 징(證)'자를 써서 징심사라고도 했다는 옛 전설을 무색케 하는 현실이다. 다행히 광주에서 2007년까지 460억원을 투입해 이 지역의 식당과 상가들을 철거해 아래쪽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보상을 시작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와 당사자간 이해충돌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오백전은 증심사에서 가장 오랜 조선시대 전각이다. 세종 때 전라감사 김방이 오백나한과 10대제자의 성상을 만들어 봉안하고 고을의 평안을 기원했다고 한다. 보수공사에 들어간 대웅전 주변으로는 중부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팔손이, 당종려, 동백, 대나무 등등의 난대수종이 눈에 띈다. 극락전 앞으로 느티나무들이 눈맛 좋게 단풍이 들었다.

도로 왼편으로 문빈정사가 자리하고 있다. 극락전 앞마당에 서양 잔디를 깔고, 잔디밭 가운데 작고 둥근 서양식 연못을 파고, 서양에서 건너온 수생식물인 물배추를 연못 위에 동동 띄웠다. 전통사찰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당히 용서되는 조건이다.

극락전 마당에서 만난 산은쫄표범나비는 남부지방에서는 채집 기록이 없는 희귀종이다. 산은쫄표범나비는 날개의 편 길이가 8cm를 넘는 중형 나비이다. 주로 6-9월에 나타나는데, 가을에 부화된 유충이 겨울을 난다. 이듬해 봄에 번데기를 형성했다가 늦은 봄에 성충으로 날개를 단다.

무등산의 나비는 1994년까지 모두 105종이 보고되었으나, 그 중 상제나비, 담쟁이리표범나비, 암어리나비, 큰수리표범나비, 꽃팔랑나비 등 5종은 2000년대 들어 사라져버렸다. 환경오염을 무시한 무분별한 입산으로 무등산 저지대의 초원지대가 파괴된 데 따른 감소로 추정된다.

등산로 오른편으로 '무등산공유화운동' 표지판이 서 있다. 난개발을 막아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무등산

중각 아래 큰 갈나무 주위에 물까지 몇 마리가 앉아 깃털이를 하고 있다. 깃털 사이에 숨은 기생충을 털어 내고 깃털을 말리거나 비람을 쉴 때 새들은 깃털이를 한다. 물까지의 야산에서부터 높은 산에 이르러까지 넓게 서식하는 텃새이다. 대머리 마리씩 무리를 지어 날아다닌다.

증심사 지구에서 관찰된 겨울철 조류는 물까지를 비롯하여 직박구리, 딱새, 평, 멧비둘기, 어치, 붉은머리 오목눈이, 멧새, 참새, 까치, 쇠박로, 박새류, 딱따구리류 등이다. 10월 조사에서는 꿩꼬리와 노랑할미새 등의 여름철새도 관찰되었다.

취병루 앞에서 왼쪽으로 춘설차밭으로 오르는 길 이나 있다. 키 작은 팽자나무 생울을 끼고 10분여 오르면 차밭이 나온다. 차밭은 등산객으로 번잡한 증심사 골짜기와는 또 다른 세상이다. 해방 후 의재 허백련 화백이 하늘과 땅을 사랑하리라 해서 '삼

에다원'이라고 이름 붙인 차밭이다. 날개따름잡자리 한 마리가 풀밭에 앉아 가을명상에 잠겨 있다. 날개따름잡자리는 비교적 가을 늦게까지 볼 수 있는 잡자리이다. 가을에 만나는 수컷은 고추잡자리처럼 몸 전체가 빨갛고, 날개의 띠도 갈색을 띤다. 다른 수컷이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꼬리를 하늘로 쳐들어서 위협한다.

차밭 위로는 소나무 숲길이다. 무등산에서도 소나무는 능선쪽에 분포되어 있다. 문빈정사 뒷 능선에서

아래쪽에 자리한 식당촌에서 상류 곳곳에 파이프를 박아서 개울물을 뿜아가기 때문이다. 수량이 줄면 수질도 함께 떨어지는 법, 그래서 소(沼)에 고인 물이 하나같이 흐리다.

냉이는 추위에 강해서 겨울에도 죽지 않고 푸른 잎으로 난다. 냉이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식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푸른 잎사귀가 붉은색으로 변한다. 한방에서는 두통이나 해열 등의 약재로 쓰고, 민간에서는 이른 봄에 나물로 먹는다. 사찰음식에서도 단골 재료이다.

주변 숲은 소나무가 섞여 있는 전형적인 혼효림이다. 참나무류를 비롯하여 초피나무, 주엽나무, 상산, 붉나무, 굴피나무, 꾸지나무, 개서어나무, 팽배나무, 생강나무, 때죽나무, 비목, 자귀나무 등과 함께 난대수종인 송악, 예나무, 졸사철나무, 마삭줄, 차나무 등이 어우러져 화엄을 이루고 있다.

햇살 풀살에 섬서구메뚜기 한 마리가 미동도 없이 앉아있다. 섬서구라는 이름은 몸의 생김새가 마치 뱀단을 쌓은 섬서구같다고 해서 붙은 것이다. 주변이 가을색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면 섬서구도 초록색에서 서서히 갈색으로 단풍이 든다. 단풍색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보호색이기도 하다.

서식하는 동물을 보면 그 산의 자연도를 간접적으로 짚어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무등산 자연생태보고서에도 멧돼지, 노루, 고라니 등이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무등산도 그 이름이 날로 무색해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사가 일주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왼쪽으로 텃밭이 있다. 노 보살 두 분이 텃밭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채소를 다듬고 있다. 텃밭 옆으로 다락형 전통해우소가 있으나, 지금은 분뇨차가 올라와서 퍼간다. 냄새가 나서 번소간을 벽돌로 쌓고 철문으로 막았지만, 더러운 것은 틀어막을수록 냄새가 더 나는 법이다. 차라리 널판으로 영성하게 짜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등산로는 약사사를 비껴서 새인봉 삼거리로 이어진다. 해발 608m의 새인봉은 암벽등반지이다. 전망이 좋아서 천왕봉, 서석대, 중머리재 등이 보인다. 중머리재는 무성하게 자란 억새밭 능선의 생김새를 빗대어 지은 이름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은관봉나무숲은 등산객들이 편안하게 쉬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정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광고·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